## 2024년 한-미 전통불교문화교류 '마음의 평안, 세계의 평화'

# 뉴욕 원각사 50주년…"원력·신심으로 이룬 성과"

### 10월 13일, 창건 50주년 기념법회 봉행

**1974년 뉴욕 맨해튼에서 출발**
**진우 스님, 교포 불자들 치하**
**"모든 불사 다 잘 이뤄지길 기도"**
**지광 스님 "큰스님 원력 덕분"**

미국 뉴욕=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한국불교 해외포교의 상징' 뉴욕 원각사가 창건 50주년을 맞아, 역사를 기념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법석을 펼쳤다.

미국 뉴욕 원각사(주지 지광 스님)는 10월 13일 오전(현지시각) 경내에서 '뉴욕 원각사 창립 50주년 법회'를 봉행했다.

원각사는 뉴욕주(州) 솔즈베리(260 Clove Road, Salisbury)에 위치한 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분원이다. 1974년 숭산 스님에 의해 뉴욕 맨해튼에서 출발, 1986년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 30여 만 평, 약 105만7850㎡에 달하는 규모다.

뉴욕 원각사의 본격적인 불사는 2004년 서울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현 뉴욕 원각사 회주)이 주지로 취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지광 스님이 2009년 주지로 취임하면서 속도를 냈고 2015년 대웅보전 상량식에 이어 2017년 무량수전 상량식, 2018년 선방인 설산당·보림원이 준공됐다. 올해 들어 단청과 탱화까지 마무리되면서 미국 동부 최대 한국 전통사찰로 위용을 갖추게 됐다. 건립비용만 1200만 달러(약 170억원)에 달한다. 한국 불교사상 해외 조성 사찰로는 최대 규모다.

뉴욕 원각사 회주 정우 스님은 환영인사에서 "감사하다, 존경한다, 열심히 하겠다"는 짧지만 강렬한 감사인사를 전했다.

진우 스님은 법어에서 5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힘써준 불자들을 치하했다. 스님은 "원각사가 50주년을 맞이한 것은 곧 뉴욕에 위치한 사찰들이 상호협력하고 신도들이 신심과 원력으로 정진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면서 "미동부 지역에서 포교활동을 히어가고 있는 눈 맑은 스님들과 함께 사중 대소사에 앞장서며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교포 불자들의 그간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축사에서 "기념법회를 계기로 한층 더 단단해진 불자들의 염원으로 오래도록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가르침을 전하는 큰 도량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 원각사가 창립 50주년 법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봤다.

진우 스님은 불사에 동참한 불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원각사 주지 지광 스님은 불사에 도움을 준 다양한 업체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지광 스님은 "다른 것보다 돈으로 할수 없는 것이 원각사에 있다. 아름다운 산과 호수, 이 도량 곳곳에 있는 여러 불자들의 마음"이라며 "도량이 이뤄지기까지 한국에서, 미국에서, 큰 스님의 원력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정대원해 뉴욕 원각사 신도회장은 신도들을 대표해 발원문을 낭독하고 "원각사가 모든 불자들의 쉼터가 돼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행복한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법회에 앞서 스님들로 구성된 포교 그룹 비텐스가 '찬불음악'을 골굴사 선무도 지도사범들의 선무도 공연을 펼쳐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를 주제로 원각사 일대에서 미동부지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전통등 강습회를 실시했다. 연등회 전통 한지등에 대한 설명, 전승전통등과 목어등을 배접하고 채색하는 시간을 통해 연등회를 세계에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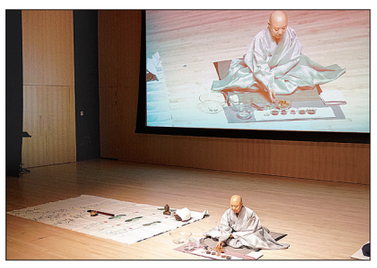
한국불교문화사업단도 경내에 원각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찰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했다. 사찰음식 조리 과정 및 시식 체험에서는 '콩가루 다식'과 '표고버섯 조청 조림' 등이 준비됐다. 사찰음식의 기본 철학과 재료 의미를 설명하고, 조리 과정 및 시식을 할수 있도록 했다.

# 美 사로잡은 사찰음식…뉴요커들 명상 체험도

### 문화사업단, 뉴욕문화원서 시연
### 정관 스님, 사찰음식의 의미 성찰
### 전통연등 전시로 한국불교 알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이 미국 뉴욕에서 '사찰음식 알아차림 명상 및 시연'을 통해 한국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10월 12일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사찰음식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와 한국 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찰음식으로 전 세계적인 '스타셰프'가 된 정관 스님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사찰음식 알아차림 명상'에서 강연자로 나선 정관 스님.

이날 정관 스님은 사찰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정신 수양의 도구'로서 사찰음식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스님이 선보인 사찰음식은 고추장으로 버무린 감말랭이 무침. 제철 식재료와 자연 발효한 양념으로 순수한 맛을 낸 감말랭이 무침을 통해 음식에 담긴 생명존중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뤄가는 모습을 몸소 보여준 정관 스님은 "사찰음식의 진정한 가치는 삶과 수행이 하나와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상을 통해 우리 삶에서 음식이 주는 의미에 대해 사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객석을 매운 200여 명의 뉴요커들은 명상을 경험하며 고요함 속에서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며 프로그램 후 연잎밥과 표고버섯 조청 조림 등으로 구성된 도시락을 선물받았다.

앞서 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사무국장 대우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사찰음식 명상으로 마음의 평온을 찾고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깨달음을 얻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뉴욕한국문화원에서는 10월 7~13일 사진영상전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 전통등 전시 '빛의 사유', 전통불교문화체험 '천년의 시간을 담다'가 진행됐다.

미국 뉴욕=임은호 기자

# '빛의 사유'로 美 환하게 밝힌 연등회

### 10월 5~13일 뉴욕 전역서 전시 · 체험

**대형 연등, 뉴욕커 눈길 사로잡아**
**예일대서 등문화 알리기 워크숍**
**진용 스님 "알아차림 시간됐길"**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는 빛이 정말 아름답네요. 지혜로 자비로 가득 채우려는 발원의 마음이 오래도록 밝게 빛나겠지요."

마음챙김 명상 창시자 존 카밧진 교수가 10월 11일 뉴욕한국문화원 1층에서 연등보존위원회가 마련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 전통등 전시 '빛의 사유'를 관람하며 감탄을 쏟아냈다. 특히 백제금동대향로등을 유심히 살펴본 존 카밧진 교수는 "신령스러운 형상의 표현이 감동을 자아낸다"고 말했다.

연등보존위원회는 2024년 한-미 전통불교문화교류 '마음의 평안, 세계의 평화'의 일환으로 10월 5~13일 뉴욕 일대에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전통등 전시 '빛의 사유'는 10월 7~13일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됐다. 연등회가 보존하고 전승하고자 하는 전통 한지등에 담긴 문화적 가치와 정성의 소중한 의미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금동반가사유상등' '백제금동대향로등' '법고등' 등이 전시돼 큰 호응을 얻었다.

전시에는 특히 대형 연등 다수가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금동반가사유상등'의 경우 120*124*201cm, '백제금동대향로등'은 71*71*187cm, '법고등'은 150*100*147cm에 달하는 크기다. 안전한 이운과 완성도 높은 전시를 위해 장진익 전통등 전문작가가 전 일정을 함께하며 유지 보수에 특히 신경 썼다.

10월 10일 예일대에서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를 알리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워크숍도 열었다. 오후 3시부터 1시간 반가량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지화연꽃과 종이팔모등 만들기 등이 진행돼 동참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워크숍에는 장진익 전통등 전문작가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10월 13일 원각사 창립 50주년 기념법회에서는 미동부지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전통등 강습회를 실시했다. 연등회 전통 한지등에 대한 설명, 전승전통등과 목어등을 배접하고 채색하는 시간을 통해 연등회를 세계에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도 10월 5일 뉴욕 대표 종합문화축제에 동참, 전통불교문화를 소개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뉴욕 32번가 5번 애니뉴에서 개최된 '2024 코리안 페스티벌'에서 운영된 연등회 부스는 한국문화의 아름다움과 한인사회 위상·자긍심을 알리는데 한 몫하기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등회보존위원회 사무국장 진용 스님은 "사바세계 탐진치로 인해 고통받는 중생들이 연등을 통해 청정하고 밝은 마음을 사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빛의 사유'를 주제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동참자들이 연등과 각종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여러가지 잡념과 번뇌를 내려놓고 알아차림의 시간을 가졌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임은호 기자



전통등 전시 '빛의 사유'에 선보인 '백제금동대향로등'과 '금동반가사유상등'.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대한불교법화종·대한불교법화종

종정 청암도선 대종사

원로원
의장 보명 (의원 일동)

총무원
원장 관효 (총무원임원 일동)

중앙종의회
의장 서안 (의원 일동)

전국교구종무원장
부산교구종무원장 법경
경북교구종무원장 해월
강원교구종무원장 승일
충북교구종무원장 지성
전라교구종무원장 정각
마산교구종무원장 현진
경주교구종무원장 혜문
김창교구종무원장 송열
창녕교구종무원장 법상

전국 사암 주지 및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92번길 17(성남동) 전화 02)762-2678 팩스 042)627-5044